

곡성 농업인재활센터, 건강충전소 역할 톡톡

전국 최초 지역맞춤형 공공의료 근골격계 예방·치료, 91% '만족' 무더위 쉼터로 주민사랑 한몸에

개소 3년을 맞고 있는 곡성군 보건의료원 농업인재활센터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치료를 통해 농업인들의 건강 충전소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3일 곡성군에 따르면 농업인재활센터는 지난 2016년 11월에 전국 최초로 건립됐다. 총 462㎡ 2층 규모이며 사업비로는 9억 2천만원의 국비와 도비가 투입됐다.

농업인재활센터는 고령농업인이 많은 곡성의 산업적 특성과 인구구조상 가장 필요한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곡성 인구 중 농업종사자는 80%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장기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

센터 건립 당시 근골격계 질환은 곡성지역 의료비 지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노년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일시적인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 만으로는 근본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곡성군 보건의료원 농업인재활센터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치료를 통해 농업인들의 건강 충전소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어렵고,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근본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재활의학 공중보건 등의 맞춤형 전문재활인력과 각종 치료장비를 갖춘 재활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늘 대두돼 왔다.

센터 개소와 함께 곡성군은 버스노선 조정도 단행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내 버스가 센터 앞 5일 시장 버스정류장을 경유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농업인재활센터는 개소 당시 언론과 방송의 집중취재로 공중과 전국 방송을 타고 전국에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 등 타 지자체와 기관의 방문이 이어지며 유명세를 탔다. 이에 따라 개소 초기 하루 이용 주민이 100명이 넘어서며 발디딜 틈이 없었다.

현재 이용자는 하루평균 50명 안팎으로, 대부분 재활치료를 통한 건강증진 효과를 몸소 느끼며 만족하고 있다.

이용자 설문 결과 "건강하다"고 답한 주민

은 이용 전 8%에서 이용 후 55%로 급증했고 종합만족도도 매우 만족 68%, 만족 23%로 답해 모두 91%가 만족스러워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느라 발생했던 경제적, 시간적 손실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용자들은 센터가 생긴 후 병원 이용 횟수는 50% 이상, 진료비 부담은 33% 줄었다고 답했다.

지역민들의 끈끈한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웃이 되어준다.

특히 독거노인들이 수시로 센터를 찾아 건강도 챙기고 이웃들과 정담도 나눈다는 점에서 소외와 고독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눈여겨 볼 만하다. 요즘 같은 폭염철에는 무더위 쉼터 역할로도 활용된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사계절 쉽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복지과 의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농업인들이 즐겁게 소모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충전소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김성주기자 injony@srb.co.kr

여주시,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 조례 개정

여주시(시장 권오봉·사진)가 최근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를 위해 '여주시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공포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시는 먼저 종량제 봉투의 무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대상은 50L, 75L, 100L 종량제 봉투며, 각각 10kg, 15kg, 20kg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 편의를 위해 30L와 75L 종량제 봉투를 신설했고, 대형폐기물 종류도 54종에서 103종으로 세분화했다.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중 참전·보훈 명예수당 수급자가 앞으로 혜택을 받는다.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에서 3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액도 1회당 최고 30만 원으로 늘었다. 자원순환을 위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도 재활용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발생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 5일 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여수=김영수기자 kms3056@srb.co.kr

화순군, 해충기피제 보관함 설치·운영

화순군은 모기, 진드기 등 해충으로부터 주민의 불편을 덜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해충기피제 보관함을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충 기피제 보관함은 만연산 등산로, 석봉미술관 쉼터, 동구리 정각주차장, 만연산 큰재,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이서커뮤니티센터, 한천 휴양림, 백산 휴양림, 능주면 천덕리 마을회관, 화순읍 이십곡리(은곡노인회관) 등에 설치했다.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해충 기피제는 친환경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고 2~3시간 정도 모기나 진드기 등의 접근을 막는 효과가 있다. 얼굴을 제외한 피부나 겉옷에 적당량 가볍게 분사하여 사용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썩스카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예방 백신이 없어 개인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작업이나 야외활동을 할 때 모기나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고 피부발진, 발열 증상 등이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순=추교윤기자 sh0434@srb.co.kr

백운산 4대 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광양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12일부터 일주일간 봉강면 성불계곡, 옥룡면 동곡계곡, 진산면 어치계곡, 다압면 금천계곡 등 백운산 4대 계곡을 대상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은 피서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피서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하천 내 평상 설치, 유수 흐름 방해 등 하천 훼손 행위로 불법행위 적발 시 행위자에게 즉시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계고하되, 이에 불응하거나 불법행위 재발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법당국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영수 시 안전총괄과장은 "하천은 재해예방시설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며 "단속과 처벌에 앞서 매년 반복되는 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광양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이승찬기자 lsc6100@srb.co.kr

장성군, '드론' 활용한 스마트 농업 선도

20일까지 자격증 취득 교육 신청 교육비 50% 최대 125만원 지원

장성군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첨단농업기계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보급에 나선다.

장성군은 병해충 방제, 종자 파종 등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하반기에 추가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평균 250만원 가량의 드론 교육비의 50%, 최대 125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만18세 이상 70세 이하의 장성 거주 농업인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완료 후 26일부터 3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 교육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항공법규, 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원리 등의 이론교육과 함께 실제 비행 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생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론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 교육 20시간을 이수한 뒤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에는 지난해와 올해 총 5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자격증 취득률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첨단 농업기계는 농업현장에서 효율성이 뛰어나고 활용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면서 "농업기계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최용조기자 young67121@srb.co.kr

순천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19~31일까지 자부담 1만8천원

순천시는 오는 19일~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동물등록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순천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등록비용은 3만~4만5천원 수준이지만, 이 기간 동안 순천시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할 경우 시술료 1만8천원을 지급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순천시와 협약된 동물병원은 10곳으로 ▲온누리동물병원 ▲연향동물병원 ▲휴동물병원 ▲신대 동물병원 ▲다담 동물병원 ▲순천만 동물병원 ▲애담 동물병원 ▲정원 동물병원 ▲호수 동물병원 ▲희망동물병원이다.

지원되는 등록비는 '생태내장형 칩'으로 훼손이나 분실 우려가 없어 외장형보다 더 효율적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동물 유기 예방과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빠른 시간 내 소유자에게 연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민이 반려견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개로 2천마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동물등록을 할 견주는 이 기간중에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물등록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박해정 순천시의회 의원이 동물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해 7월말 공포함에 따라 지원이 가능했다. 7월중 동물등록을 마친 동물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자진신고 기간인 7월~8월 중 1천266마리가 추가로 등록해 총 5천450마리가 등록했으며, 6월말 대비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동물등록 정보 변경사항 미 신고자에게 자진 신고기간 이후 9월부터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김화선기자 balaboda2@srb.co.kr

부동산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100
- B형 : 83×50
- C형 : 126×50

SK VIEW SK공인중개사
H. 010-5099-2400
H. 010-9466-3400

농성동 SK VIEW
매매, 전·월세 상/담/환/영
물건 다량 보유
9월 16일 입주
농성동 SK부 단지내 상가 107호 입점
H. 010-8524-3150
농성 탐> 공인중개사

사랑방 부동산
MAP+ (맵플러스)
OPEN

이젠 지도검색으로 내집마련 할지도!

- ▶ 아파트·오피스텔 매물 검색
- ▶ 중등학교 배정구역 확인
- ▶ 가건변동등 신고
- ▶ 중개사무소 위치
- ▶ 단지별 시세 리뷰 제공

광주 정보량 1위 상가·부동산광고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바로 여기서!

- ✓ 압도적인 정보량
- ✓ 관련 면 단독 게재
- ✓ 신문 게재시 인터넷·모바일 동시게재

상가·부동산 광고는 역시 **사랑방**

봉선동 상가 임대·분양
◆ KJ빌딩 신규 파격 임대·분양 ◆

- 지 하 체육관 / 헬스클럽
- 스크린 골프 / 기타 업종
- 1층 모든 업종 가능
- 2층 전문병원 / 학원 (병원 상담시 특별혜택)
- 3~6층 병원 / 타업종 가능

상담 문의 H. 010-6705-6267
H. 010-3632-2401

광추최초 동영상서비스
아파트 분양정보
찾을 땐 **사랑방**

- 광주 최초!** 단지 규모와 주변 환경 등 놓쳐서는 안될 주요 정보를 영상 리포트로 확인해 보세요.
- 국내 최초!** 교통, 생활인프라, 교육환경을 360° 드론영상으로 생생하게 경험해보세요.
- 생생한 현장감!** 모델하우스 방문 없이 가실부터 주방까지 집안 곳곳을 생동감 있게 경험해보세요.